

# 계 받기 겁나요? 그래도 받으세요

이제 겨우 불교에 첫 발을 내딛은 이들에게 수계(受戒)는 낯선 격식과 복잡한 절차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를 수지하는 일은 참회와 서원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자 부처님 전에 올리는 약속이다. 때문에 못 지킬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받고 지키려 노력하는게 중요하다. 수계가 지닌 의미와 수계자가 지켜야 할 자세를 정리했다.

### # 수계 의미 바로 알아야

불교에 입문하면 수계의식을 치르면서도 대부분의 입문자들은 이에 대한 기초상식이 부족하다. 전계사는 반드시 수계의 의미를 알려주어 계가 지켜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는 잘못된 것을 막고 날로 선을 증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삼학(三學, 계·정·혜)의 으뜸으로 삼을 만큼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계를 받아 지니는 의식은 불전에서 엄숙한 가운데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확인을 받는 자리인 것이다.

과거사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은 "계를 받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한다는 것"이라며 "계를 지켜야 참다운 불자가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지계의 밑거름이 된다. 용맹정진 후에 계를 받으면 수계의 의미는 한층 더 확고해질 것이다.

1박2일 또는 그 이상의 일정으로 수계를 받으러 사찰에 간다면 1보1배, 발우공양, 1080배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수계에 임하는 것이 좋다. 받을 계에 대한 지식을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수계사찰·계사 선정 신중히

수계를 받는 장소와 계사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평소 인연이 있는 스님에게 계를 받는 것이 좋다. 다니는 사찰이 없거나 알고 있는 스님이 없는 경우라면 앞으로 다닐 사찰에서 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사로부터 듣는 덕담이 지계의 책칙이 되기 때문이다.



수계의식은 요식행위로 흘러버리기 쉽지만 불제자로 거듭나는 중요한 의례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불제자로 거듭날 것 다짐·확인 받는 자리 계 받기 전 1보1배, 1080배 등 도움 인연 있는 스님께 받고 범명 꼭 기억해야

### # 서원을 세워라

수계의식에 담긴 두 가지 큰 뜻을 꼽으라면 참회와 서원이다. 참회는 자신의 죄과를 깨우쳐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식이며, 서원은 계를 받아 지녀 참제자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다. 이 외에도 각자의 원을 세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원을 세운다면 수계의 의미를 한껏 살릴 수 있다.

또한 서원은 원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서원을 이루겠다는 원까지 세워야 한다. 서원이 굳건하지 못하면 계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 수계하기 전 서원지를 작성하는 것은 서원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서원지를 간직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면 각오를 새로이 할 수 있다.

### # 용맹정진 후 계 받으라

계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계자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540배나 1080배 등으로 마음을 다잡는다면 도움이 된다. 용맹정진은 수계에서 스스로 굳은 다짐을

또한 자신에게 수계해준 계사와 계사가 내려준 수계명(범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계사와 범명을 알고 있어야 자긍심이 생긴다. 이런 자긍심은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 # "수계했다" 주위에 알리라

수계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지계는 그렇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입문은 쉽지만 참다운 불제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수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계를 지킬 자신이 없다고 해서 수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를 받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수계의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수계를 한 뒤에는 자신이 계를 받았음을 대중에게 말함으로써 스스로 각오를 다지면 좋을 것이다. 계를 지키거나 또는 지키지 못하는 일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불자 지휘관들 도움이 컸죠"

### 남양주·홍천 경찰서 불교회 연이어 창립

남양주경찰서 불교회는 5월 13일 청사내 강당에서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과 남양주경찰서 경승위원장 송묵 스님, 중랑경찰서 경승실장 범만 스님, 최재성 국회의원, 문수원 남양주경찰서장, 봉선사 합창단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초대회장 김영철 경무과장(경정)이 선출됐다. 남양주경찰서 불교회는 문수원 서장의 후원으로 창립이 성사돼 훈훈한 감동을 전해준다. 문서장은 서울 남부경찰서와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재직할 당시에 불교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법사로 나선 봉선사 조실 월은 스님은 "오랜 기간 창립을 발원한 끝에 불교회가 결성된 만큼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규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불교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앞서 5월 11일에는 홍천경찰서 불교회가 청사내 대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홍천경찰서 불교회 창립은 홍천 백락사 주지 성민 스님과 회승화 수사과장이 1년여 동안 법당 개원과 더불어 준비해 오던 중 전병환 홍천경찰서장의 결단으로 법당 개원에 앞서 성사됐다.

홍천경찰서 불교회는 앞으로 홍천군 청 공무원불자회와 연대해 연합법회와 월 1회 정기법회를 열어 회원들의 신심을 다질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경찰불교회는 5월 29일 오전 10시 평창 월정사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제3기 임원단 선출과 공로자 표창 등이 있을 예정이다.

## 우리단체 이사람

### 류남녕

### 불자약사보리회 총무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약사들로 구성된 불자약사보리회. 올해로 8년을 맞은 불자약사보리회는 왕성한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가운데 하나다. 12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불자약사보리회가 12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견실한 단체로 성장하기까지는 총무를 맡고 있는 류남녕(45·사진) 약사의 노력이 주춧돌이 됐다.

"IMF로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가 거리에 내몰릴 상황에서 부처님전에서 약국을 차려주면 1천명 무료투약을 하겠다는 발원을 했어요. 약국을 차리고

난 후에는 빚 갚으라 무료투약 봉사하라 하기도 될 날이 없었습니

다. 어느새 8년이 됐네요." 불자약사보리회를 창립하고도 운영비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을때 류총무는 자신의 약국에서 6백만원 상당의 약품을 내놓았다. 약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모두 빚 갚던 시절이었다.

불자약사보리회의 봉사활동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울지로 지하철역에서는 노숙자에게 커피와 무료약품을 제공했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모이는 파주와 안산, 김포 등지를 찾아 무료투약과 상담활동을 펼쳤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을 3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독송하고 100일 기도 다니기를 여러차례 해보았지

만 봉사현장에서 흘리는 눈물만큼 값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류총무는 1985년 서울불교청년회 활동 이후 줄곧 불교개혁운동에 동참해 왔다. 지식인들이 깨어나야 불교가 산다는 신념에서다. 불자약사보리회를 창립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8년동안 불자약사보리회는 8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당초는 그저 1천명에게 무료투약하겠다는 류총무는 목표치를 훨씬 넘었지만 그만두지 못했다.

"후원금을 보내주는 회원 중에 한 보살님은 매일

108배를 해서 동전을 모아 마련한 남편 제사 비용을 우리에게 가져다주

다. 큰 돈 들어 천도재 올리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대조 되더군요." 총무 창릉사에 다니는 류총무는 불심이 매우 돈독하다. 집과 약국에 불단을 마련해놓고 하루종일 능엄신주를 읽 정도다. 그런 류총무가 불교병원과 선방을 건립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나이가 들어 오갈데 없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삶을 회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약국을 개원할 때 같이 세웠던 원이예요. 절에 다니면서 문중이 없어 쫓겨나는 스님을 보고 난 뒤였지요. 불교가 구태에서 벗어나 중생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불자들이 더 정진했으면 좋겠네요."

박봉영 기자

### 80만명에 무료투약 봉사

### 불교병원 선방 건립 발원

### 공무원불자 합동수계식

### 6월 25~26일 통도사서

공무원불자들이 직장불교 활성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부처님앞에 서약한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6월 25~26일 양산 통도사에서 공무원불자와 가족이 참가하는 제5차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수계법회는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1보1배와 수계의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불련은 이번 수계법회와 제11차 성지순례를 겸해 개최할 예정이다.

### 서울경인교사·다보회

### 성지서 야외법회 봉행

서울·경인교사불자회와 서울철도차량관리단 다보회가 5월 28일 성지순례 일환으로 야외법회를 봉행한다.

서울·경인교사불자회는 고달사지와 신륵사, 목야박물관 등지를 돌며 야외법회를 봉행한 뒤 이어 분당 하안파음선원에서 3천명 철야정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다보회는 김계 금산사를 찾아 순례법회를 연다.

#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글

(어리석은 분은 읽은들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읽지 마세요)

## "UFO와 하나님의 실체" <천지창조의 비밀>에 대한 책의 광고를 10여 차례 게재한 취지의 설명입니다.

민족의 정서와 의식이란 그 밀바탕이 그 민족의 오래된 전통적 신앙과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意識)의 전환운동이란 그 시대를 잘 파악하여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잘 인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의식(意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고 대처하는 일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올고 합리적인 이론과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바른 사상과 종교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민족의 깨달기 운동이 자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다(多)종교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천주교)의 독무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서거하자 마치 우리의 國父가 서거한 것보다도 더한 뉴스의 독무대는 민족의 주체적 의식이 망각된

채 사대주의 신앙으로 이끌고 있었습니. 깨닫기 운동이란 바로 전 인류가 최종적으로 가야할 지표이며, 이 길은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실마리 일입니다. 미물까지도 널리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인데 어찌 사도(使徒)들이라 하여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도하고 바르게 이끌 사람들은 불교인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서 해매고 있는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올고 합리적인 이론과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바른 사상과 종교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민족의 깨달기 운동이 자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바른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수행자의 옳은 행위이며 자비 정신이므로 그들을 기려하고 측은한 마음에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과 교관수호의 여러 가지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결코 남의 신앙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법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

는 것이요,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항상 쓰고 있으면 타성이 붙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닫기 운동이란 바른 법을 널리 홍보하고 깨달음의 길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창조의 비밀>을 널리 홍보하고 읽게끔 하는 그 자체가 포교이며, 많은 노력과 지금을 들이지 않고 종교 간에 갈등과 다툼 없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히 교화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도는 전 종교인의 과반수(過半數)가 넘고 천주교인도 4백만이 넘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학 예술 등 각 분야에 있어 지도급 인사를 7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통계가 나왔으므로 사회는 그들의 논

리에 좌지우지됨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교인은 몇%일까요? 10%도 못되는 현실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兆) 우리나라의 전 예산을 퍼붓는다고 해도 기독교의 교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스님들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신도가 줄어 폐사 위기의 사찰이 많은데 지금도 대형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이 크고 불상이 크면 영험한 부처님이 계신가요? 불교계 신문의 광고에 나와 있는 많은 사찰 매대는 무엇을 뜻하나요. 신도가 없으면 한 종의 재가 된다는 것을 모르니 아무리 큰 절을 짓고 불상을 크게 만든들 무슨 공덕이 있었습니까? <천지창조의 비밀, 김중성 씀>을 日刊紙에 꾸준히 광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읽게끔 한다면 불

교인은 자긍심에 개종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무종교인은 기독교(천주교)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기독교인들도 비논리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므로 스스로 자각의 소리에 귀를 열고 깨달음의 종교에 귀의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교화하는 방법, 종교전쟁이 없이 교화하는 방법은 메스컴을 통한 교리의 홍보입니다. 이것이 자제가 아닐까요. 성현의 가르침이 <깨닫기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범민족 깨닫기 운동모임> 임원 일동 회장 김도기(관음사 주지) 동참하실 분: 농협 751025-51-021224 (여금주: 김팔영(도기)) (054-633-0108, 010-2465-1357)